분과 및 학계 동향

2026 인문 사회 제3분과 학술활동



高東煥 會員 (한국사)

인문 사회 제3분과는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지리학, 문화인류학 등의 분과학문을 포괄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과의 학문 동향을 정리하기에는 필자의 역량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난 1년간 인문사회 3분과의 학문동향과 학술활동을 정리하는 이 글에서는 불가피하게 회원 각자의 학술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다만 회원중에는 건강등의 사정으로 학술활동이 실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한편, 고령임에도 학문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면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는 회원도 있음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이기동 회원은 2026년 상반기에 논문「新羅·高麗 交替期에 있어서 西北韓 지역의 特性」(『학술원논문집』 제65집 1호, 269~306쪽)을 발표하였다. 이는 학술원의 전문학술활동 지원사업에 따라 수행한 성과로 제출된 것이다. 연구자는 신라가 3국을 平定한 뒤 새로이 확보한 대동강 이남 임진강 유역 북방에 8세기 중반부터 9세기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平州(현 평산)를 비롯한 14개의 郡縣을 설치하고, 이 군현을 浿江鎭典의 관할아래 軍政체제를 구축한 점에 주목했다. 조정은 이곳에 옮겨진 民戶들에게 屯田을 개발하고, 일선을 지키는 군사적 임무를 부과하였다. 9세기를 통해서 신라는 내란이 거듭되는 혼란 속에서 골품제와 律令制가 해체되어 갔으나, 신라 전역을 통틀어 가장 후진 지대였던 이 平州 14개 군현 지역만은 견실하게 운영되어 사회적 활력마저 발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889년(진성여왕 3) 농민들의 전국적 반란으로 지방군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림에 따라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패강진 지역은 고립되었다.

연구자는 연구생활 초기에 발표한 논문「신라 下代의 패강진」(『한국학보』 4, 1976)에서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실을 개괄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그때 연구자는 '고려왕조의 성립과 관련하여'라는 副題를 논문에 달았으나, 정작 이 문제를 詳論하지 못한 채 후일의 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 이번 논문은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였다.

농민반란이 일어난 지 10여 년 뒤인 서기 900년경, 두 개의 반란국가가 등장하여 신라와 더불어 후삼국시대를 연출했다. 당시 궁예는 溟州(현 강릉)와 화천, 金城(현 금화), 철원, 개성으로 영역을 확장하였고, 개성 북쪽에 인접한 패강진 관할지역으로 나아가 평주 14군현의 잔여 세력을 일거에 집단적으로 흡수하였다. 궁예는 뒤에 철원에 도읍하면서 패강진지역에 13개의 鎭을 分置했노라고 선전했는데, 이는 바로 14개의 군현으로 결합된 이 지역을 접수했다는 의미이다. 평주 14군현 출신들은 궁예의 후고구려 정권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에 이르러 이들 세력은 권력의 중추로 급부상했다. 태조의 가계는 조부 作帝建이 평주 세력가의 딸과 혼인하고 외증조부 康忠이 패강진 장관 金八元과 교류하는 등 일찍부터 패강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건국 후 태조의 북진정책과 서경(평양) 중시책에 따라 동주(서흥)의 金行波 등 패강진 세력이 대거 평양으로 이주하여 기반을 닦았다.

그 뒤 983년(성종 2) 12牧 제정 때 평주 14군현 지역의 해주와 황주가 선정되었고, 995년(성종 14) 12목을 다시 10道로 개정할 때 패강진 지역에 浿西道가 설치되었다. 패서도는 14개 州, 4개 郡, 7개 鎭으로 구성되었다. 군의 상급 관청인 주가 군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은 고려 조정이 옛 패강진 지역을 파격적으로 우대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또한 군사적 의미를 지니는 鎭을 패서도에만 설치하였다. 고려의 지방군은 州縣軍과 州鎭軍을 두었는데, 고려 전기의 주진군의 선구적 형태를 신라 하대의 패강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신라 하대 패강진의 군사·행정 조직이 고려 전기의 주진군 제도로 계승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평주 14군현은 신라와 고려를 잇는 역사적 연속성의 현장이었으며, 박수경 등 패강진 무장 가문의 활약과 그 유산은 고려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태진 회원은 지난 1년 동안 3편의 단독저서 출판, 1편의 단독저서 일역본 간행, 2편의 영문논문(북챕터) 출판, 1편의 국문 논문 출판 등의 활발한 학술활동 성과를 거두었다. 단독저서 3편은『이태진 교수의 한국 근현대사 특강-국민국가 130년의 역사-』(지식산업사, 2025.12),『한국 근현대사의 큰 흐름 읽기 (상) -여섯 가지 이슈로 다시 읽는 근대사-』(사회평론 아카데미, 2026.8),『한국 근현대사의 큰 흐름 읽기 (하) -공과 과로 읽는 현대사-』(사회평론 아카데미, 2026.8)이며, 日譯本 1편은 大阪大學 酒井裕美 교수가 번역한『日本帝國の「東洋史」開發と天皇制ファシズム』(明石書店, 東京, 2026.3)이다. 2편의 영문논문은 ***"Beyond the San Francisco System"***(Young-Ho Kim · Tae-Jin YI · Wada Haruki · Dekun Hu · Alexis Dedden Editors, Springer. 2026)에 실린 1) "A Case for the Modifiability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Examining the Varying Posi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Over South Korea Participation", 2) "The Political Situation Surrounding the 'Trans-war Phenomenon' in Postwar of Japan and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이며, 1편의 국문논문은 대한민국학술원의 지원을 받아 그 결과를 출판한「의친왕 이강의 항일 활동-송암(松庵) 김재식(金在植) 및 '제국익문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학술원논문집』 제64집 2호, 2025.12)이다. 이하 주요 저작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태진 교수의 한국 근현대사 특강』은 2023년 6월 7일부터 2024년 9월 21일까지 중앙일보사의 일요판『중앙 SUNDDAY』에 연재한 동명의 연재물을 정리 보완해 낸 책이다. 저자가 2000년에 펴낸『고종시대의 재조명』에서부터 추구해온 일본제국 식민주의의 왜곡으로 빚어진 근대사의 여러 잘못된 이해, 인식을 바로 잡는 연구 성과를 일반 독서인의 레벨에 맞추어 쓴 글이다. 책 머리에 붙인「'130년 국민국가 역사'를 제창하며」는 1895년 2월 26일(양력) 군주 고종이 내린「교육조칙」이 "나라의 정치제도를 닦아나갈" 신민(臣民) 창출을 위한 덕(德), 체(體), 지(智)의 삼양(三養)의 신교육을 제창한 점을 주목하여 강조했다.

『한국 근현대사의 큰 흐름 읽기』 상권은 일제 식민주의 역사로 잘못 알려진 근대사의 주요 대목 여섯 가지를 체계적으로 비판하여 자력 근대화 노력의 진정한 우리의 근대사를 제시했으며, 하권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진정한' 우리의 근대사를 이어가는 현대사를 공과 과의 양면을 아울러 살펴 좌, 우 이데올로기 싸움의 터전처럼 잘못 수립되고 있는 그간의 현대사 서술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마무리 글「대한민국 대통령, 왜 끝이 불행한가?」는 모두 함께 반성하는 기회를 기대했다. 이 책의 간행은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아 동아일보(2026.09.07)에서는 <근대가 날아가 버린 현대사를 새로 쓰다>라는 제목으로, 경향신문(2026.09.08)에서는 <'실패한 근대'와 '해방 전후' 넘어…통합의 근현대사>라는 제목으로, 중앙일보

(2026.09.12)에서는 <실패한 역사 아니라 오늘을 이끈 근대> 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의친왕 이강의 항일활동」 논문은 조선·대한제국의 황실 인물로 유일하게 1899년부터 1905년까지 근 6년간 미국 유학 생활을 한 의친왕 이강(1877~1955)의 항일활동을 새롭게 규명한 것이다. 의친왕의 유학은 황제 고종이 왕립대학 창설을 위해 보낸 것이었으나, 1904년 2월 러일전쟁의 발발로 왕립대학 창설은 실현되지 못했다. 고종은 1902년에 황제 직속의 對日 정보기관으로 帝國益聞社를 세웠으며, 1906년 4월 귀국한 의친왕에게 의친왕부를 세워 제국익문사의 관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친왕은 황실 재산 관리 기관인 내장원 관원 경력의 소지자 김재식(金在植)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는데 이 또한 항일 활동을 위한 것이었다.

최병현 회원은 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첫째 논문 「가야시기 김해지역의 고분 전개와 신라 지역화」(『학술원논문집』 제64집 2호, 대한민국학술원, 2025.11. pp.155~279)는 필자가 고고학 자료를 통해 김해지역에서 原가야라고 할 수 있는 정치체가 성립하고 발전되어 온 과정을 밝히고자 써 온 연작 논문(「원삼국시기 김해지역의 목관묘·목곽묘 전개와 사로국」, 『中央考古研究』 39, 중앙문화재연구원, 2022), 「가야조기 김해지역의 목곽묘 전개와 구야 내부 사회의 변화」, 『학술원논문집』 제62집 2호, 대한민국학술원, 2023.12)의 마지막 편이다. 이 논문에서는 서기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전반기까지 고분을 중심으로 김해지역에서 전개된 고고학 자료를 살피고 신라가 김해지역에 침투하여 가야를 통합해 가는 과정을 추론하였다. 김해지역에서는 왕묘인 초대형 목곽묘가 가야조기에 이어 대성동고분군에서 축조되고 있었지만, 서기 4세기 중엽에는 가야양식토기가 성립하여 가야시기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대성동고분군 축조세력과 함께 김해지역의 양대 세력 중 하나인 양동리고분군 축조세력은 곧 신라계 고분을 수용하기 시작하였고, 서기 4세기 후엽부터는 김해 전역의 고분군에서 가야양식토기와 함께 신라전기양식토기가 부장되기 시작하여, 서기 400년경부터는 고분의 부장토기가 신라전기양식토기 중심으로 바뀌고 가야양식토기는 소수화 하였다. 이는 신라가 김해지역의 가야세력을 장악하기 시작하여 그 지배하에 넣고 김해지역을 신라 지역화한 과정을 말해주는데, 이와 같은 신라의 김해지역 장악이 집안의 고구려 광개토왕비에서는 서기 400년 고구려군이 신라를 도와 남정한 것으로 기록된 것이 아닐까 추측하였다.

신라 지역화 이전 가야시기 김해지역에서는 고분군의 분포가 가야조기에 비해 월등히 확대되고, 고분군 사이에 중층적인 위계구조가 형성되어, 김해지역의 정치체가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김해지역의 가야가 한국고대사에서 정의하는 고대국가, 즉 정치적 중앙이 형성되어 광역의 지방을 지배해 나가는 사회단계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신라 지역화 이후 김해지역 사회는 신라에 의해 재편되어 지배를 받아오다가 서기 6세기 전반기에 신라에 완전히 통합되었다.

둘째 논문 「고대 부산지역의 정치적 동향 –신라와 가야 사이에서-」(『학술원논문집』 제65집 1호, 대한민국학술원, 2026.7. pp.307~401)는 고대에 가야에 속했는지 신라의 지배하에 있었는지 학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산지역의 정치적 동향을 고고학자료를 통해 살펴본 것이다. 고대의 창녕과 부산지역, 특히 부산지역의 정치적 동향은 김해에서 성장한 가야가 고대국가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는지의 여부와도 직결된 문제로, 창녕지역에 대해 살펴본 전고(「한국고대사에서 창녕은 원래 가야였나?」, 『학술원논문집』 제62집 1호, 대한민국학술원, 2023.7. pp. 181~309)에 이어 부산지역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부산지역에

서는 서기전 1세기부터 변한에 뿌리를 둔 정치체가 성장하여 서기 4세기 중엽까지는 신라에도 가야에도 속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해 오면서, 그 수장세력이 신라와 결속하거나 또는 신라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기 4세기 후반에 들어오면 급변하여 부산지역은 신라의 간접 지배하에 들어갔으며, 그 지역 수장묘들이 부산 복천동고분군에 이어 연산동고분군에서 대형 고분으로 축조되었다. 그리고 서기 6세기에 들어올 무렵부터 신라는 부산지역을 직접지배해 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산지역이 김해지역과 함께 금관가야의 일원이었다거나, 서기 400년 고구려의 남정 이후 금관가야의 패권이 김해지역에서 부산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학계 일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말해준다.

셋째 논문 「금호강·형산강유역의 삼각형점토대토기 편년과 초현기 목관묘의 전개」(『崇實史學』 56, 역사문물연구소, 2026.6. pp.157~209)는 신라의 모태가 된 원삼국시기 경주의 사로국, 가야가 되는 원삼국시기 김해 구야국의 성립에 앞서 낙동강의 지류 금호강과 형산강유역에서 전개된 초기철기시대의 목관묘 사회를 고찰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무문토기의 일종인 금호강·형산강유역의 초기철기시대 삼각형점토대토기를 상대편년하고 그 절대연대를 비정하였다. 삼각형점토대토기는 물레와 같은 성형 도구가 도입되기 이전 무문토기의 일종으로, 사람의 손만으로 만들어져 정형성이 떨어짐으로 형식분류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기종 가운데 흑도장경호는 동체와 경부의 비율이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점에 착목하여 삼각형점토대토기 및 그와 공반되는 철기들을 모두 4기로 상대편년하고, 그 연대를 서기전 2세기 전엽부터 말까지로 비정하였다. 이어서 목관묘의 분포를 대구지역, 경산지역, 경주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 목관묘 사회의 계층화와 수장층을 이루는 유력 개인묘의 발전 양상을 파악하여 사회 발전 단계를 살펴본 바, 대구지역에서는 초기철기시대에 이미 읍락들이 결집하여 '국'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론하였다. 원삼국시기 진·변한의 '국'들은 금오강·형산강유역의 이 초기철기시대 목관묘 사회가 지역적으로 확대되면서 성립하고 발전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초현기 목관묘 사회는 삼국시대 신라와 가야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임돈희 회원은 지난 1년 동안 1편의 저서 출판과 학회의 기조연설와 학술발표,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저서 『유네스코와 한국의 무형유산 정책: 한국은 무형유산 선진국이다』(민속원, 2025.11)은 한국의 인간문화재 제도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보다 약 40년 앞서 시행되었으며, 한국의 경험이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정책과 협약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조명하였으며, 한국의 무형유산정책 발전과정뿐 아니라 저자가 직접 참여한 국내외 현장 경험과 학술적 연구 성과를 폭넓게 아우른다는 점에서 무형유산학의 이론과 실천을 종합한 연구서이다. 이 저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앞선 무형유산 보호제도를 발전시켜 온 '무형유산 선진국'임을 널리 알리는 한편, 세계 무형유산 정책의 발전을 선도해 왔던 역사와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크다고 평가된다. 이 책은 2026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임돈희 회원은 제2회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 포럼에서 「대한민국 무형유산 정책의 향후 10년」을 주제로 기조발표(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2025.12.09), 민속박물관 특강 「유네스코와 한국의 무형유산 정책, 한국은 무형유산 선진국」(국립민속박물관 강당, 2026.03.16), 무형유산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아리랑 무형유산센터 건립 방안」(남원, 2026.05.01), 진관사 수륙재 유네스코 공동등재 국제학술회의 좌장(진관사, 2026.06.25),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0주년 기념포럼(제주, 2026.09.18) 등의 학술발표와 학술회의 좌장으로 회의를 이끌었

으며, 이외에도 진관사 수륙재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회 회의(2026.01.16.),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국제집행위원회 화상회의(2026.06.15), 사찰음식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 전문가 국제자문회의(2026.08.26.) 등 10여 차례의 국내외 학술회의 및 무형유산 관련 활동에 참여하였다.

김호동 회원은 2025년 10월 13-14일 독일 마인츠(Mainz)에서 열린 UAI(국제학술원연합) 제93차 총회에서 4년 임기(2025-2029)의 상임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2026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파리의 프랑스학술원에서 열린 UAI 제1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1차 상임위에서는 2027년 3월 방콕 총회 준비, 장기 학술프로젝트의 평가 방식, 신진연구자 지원제도(ECRA)의 개편 및 국제학술기구와의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이 회의를 통하여 국제 인문학계의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한편, 서구 중심의 학술 담론 속에서 한국 인문학과 동아시아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김호동 회원이 이스라엘 히브루 대학의 미할 비란(Michal Biran) 교수와 함께 책임 편집한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Mongol Empire"*** vol.1, 2(Edited by Michal Biran and Hodong Ki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2024) 중 vol.1이 2026년 4월 사계절 출판사에서 『케임브리지 몽골 제국사』 전3권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이 책은 영문판 1권을 정치사, 주제별 역사, 지역사 및 외부 역사로 나누어 옮긴 것으로, 몽골제국을 단일 민족이나 정복의 역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라시아 전체의 연결과 교류, 그리고 다양한 정치·문화 전통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한 것이다. 국내 연구자와 일반 독자가 국제적 몽골제국사 연구의 성과를 한국어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책의 출판은 언론의 주목을 받아 한겨레신문(2026.05.01.)에서는 <몽골 제국은 첫 세계화 이끈 유라시아 연방이었다>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2026.05.07)에서는 <다른 민족에 문화 강요하지 않은 몽골… '최초의 세계화' 이뤘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서의 소개와 김호동 회원의 인터뷰가 실렸다.

김영식 회원은 2026년 8월 19~21일 사흘간 일본 교토에서 거행된 제8차 한일과학사세미나의 첫날 Round Table에서 「지난 45년간 한국 과학사학계의 변화」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다. 한국 과학사학계는 45년 전에 비해 과학사 대학원전공과정의 개설, 과학사 전공자의 증가 등의 외형적 변화와 더불어 내적으로 과학사 학문의 성격도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과학 내용의 변화를 다루는 "내적(internal)" 과학사 위주에서 과학 외적 요인과 배경들을 다루는 "외적(external)" 과학사로, 시기적으로는 전통 시기 또는 19세기 이전 시기 위주에서 20세기와 현대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사로 변화한 것이다. 또한 과학사 연구 주제도 물리과학, 생명과학, 의학, 기술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연구 시기와 지역 또한 전통과 근현대, 서양과 동양(한국)을 아우르면서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었다. 또한 학문적 수월성과 대중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두가지 흐름이 나타났지만, 양쪽 사이에 큰 마찰이 없이 일종의 분업이 형성되었다. 이외에도 연구방법론에서 "내적" 접근법과 "외적" 접근법 사이의 균형 이외에도, "social constructivism", "cultural studies", "science and empire", "post-colonialism" 등등 새로운 접근법들이 다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과학사학회의 구성원들이 학계만이 아니라 실무(언론, 정책, 과학문화 사업) 등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고, 세대간의 단절이 있었던 45년 전에 비해 최근에는 세대 단절 없이 세대 사이의 조화를 이루면서 학문적 계승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고동환 회원은 2026년 6월 21일 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 토지대장연구반에서 「21세기 조선후기사 연구동향」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2001-2025년 25년동안 조선후기를 대상으로 발표된 저서는 2,757편, 논문은 13,634편이며, 박사학위논문은 323편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하였으며, 한국학진흥사업단, 규장각, 장서각,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고전번역원 등 한국학 지원기관이 증가하였고, 이와 동시에 관련 학회와 저널 등도 대폭 늘었고, 각종 연구지원사업도 활성화되어 연구 논저가 대폭 증가하였다고 파악하였다. 연구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고문서, 일기류의 번역출간, 호적류의 전산화와 온라인 제공 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연구경향도 나타났다. 고문서학회, 도시사학회, 여성사학회 등의 학회와 서울학, 인천학, 대구학, 제주학 등 각 지역을 단위로 한 연구소 등도 설립되었다. 이와 같이 학회, 연구소의 창립과 저널의 창간으로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었던 생활사, 미시사, 여성사, 도시사, 지방사에 대한 연구가 대폭 늘었다. 또한 단성호적, 대구부호적 등의 전산화가 완료됨으로서 신분제 변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추구되었으며, 주요 가문에서 소장된 고문서들이 발굴 공개되고 번역 출판되면서 향촌사회는 물론 친족집단에 대한 연구도 심화되었다. 그리고 정조 어찰의 공개로 조선후기 정치사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규장각과 장서각에 소장된 각종 의궤류와 동궁일기 등이 번역 출판되면서 조선후기 왕실문화에 대한 연구도 대폭 증가하였다. 한편 조선후기 경제사 연구는 내재적 발전론에 기초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소농사회론>, <19세기 위기론>, <동아시아 담론>과 같은 새로운 시각에서 조선후기사를 보려는 시도도 나타났다. 이외에도 고동환 회원은 서울역사박물관 특강(「조선후기 서울 주민의 생업과 도시문화」 2026.06.12), 절두산순교성지 특강(「양화나루로 읽는 조선후기 서울의 물류와 경제」 2026.08.27)을 행했으며, 절두산순교성지 특강 원고는 『병인박해, 병인양요 160주년기념 특별전 도록-양화나루로 읽는 잠두봉이야기』(절두산순교성지, 2026, pp. 72-79)에 실렸다.